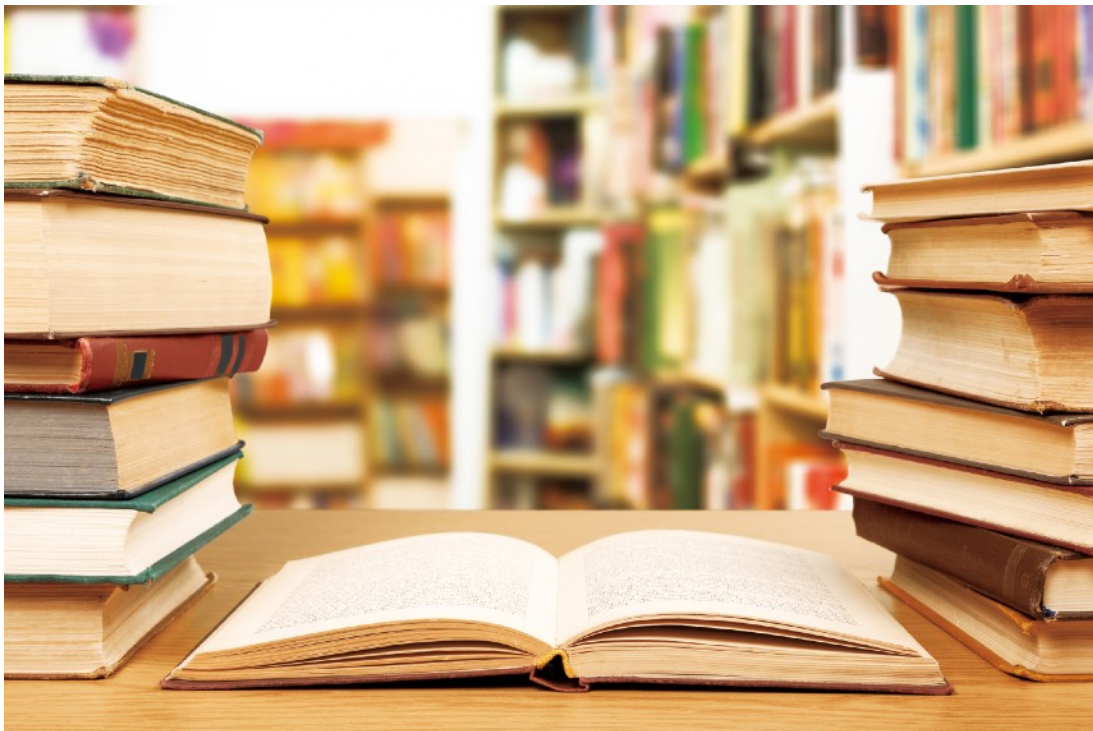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아동 돌봄 실태 및 교회의 역할]
비개신교인 워킹맘 10명 중 3명,
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있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2020년 임금근로자의 소득 결과
 - 2) 2021년 초·중·고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비개신교인 워킹맘 10명 중 3명, 교회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적 요소가 얽혀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어느 하나가 아닌, 다양한 방면에서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하나로 ‘자녀 보육/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교회가 갖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은 기여를 하는 사역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돌봄에 대한 기본적 실태와 인식(일하는 어머니 대상), 그리고 교회의 돌봄 사역에 대한 실태와 인식(담임목사 대상)을 알아보는 조사를 CTS가 최근 진행하였는데 이번 주 넘버즈 제133호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실고자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워킹맘)의 대부분이 ‘출산/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했을 정도로 돌봄과 육아 여건이 녹록지 않다.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비개신교인 어머니 10명 중 3명이 이용 의향을 보였다. 믿을만한 돌봄 기관에 대한 갈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하는 어머니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돌봄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인식과 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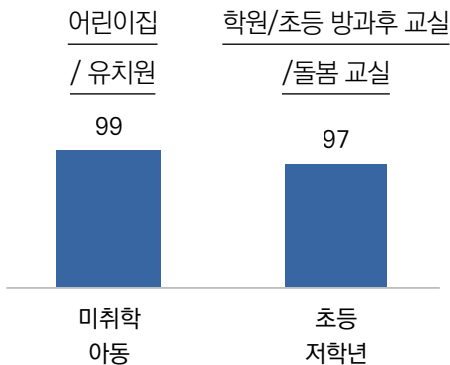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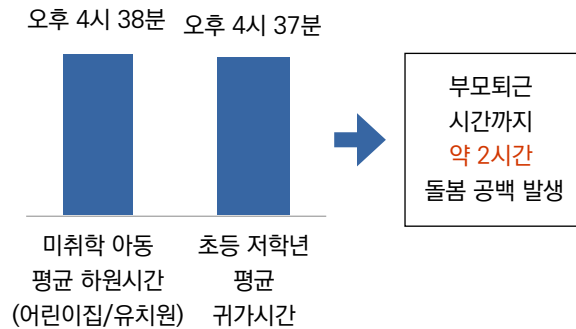
미취학/초등 저학년 아동, 부모 귀가까지 약 2시간 돌봄 공백 발생!

- ▶ 거의 대부분의 미취학, 초등 저학년(1-2학년) 아동들이 돌봄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평균 하원/귀가 시간은 4시 30분 경으로, 부모가 일반적으로 6시 퇴근 직장에 다니다고 가정할 때, 퇴근 후 귀가 시간(대략 오후 6시 30분 경)까지 약 두 시간 정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미취학 / 초등 저학년 아동 돌봄기관 이용률 (어머니 대상, %)



[그림] 미취학 / 초등 저학년 자녀 귀가 시간 (어머니 대상, 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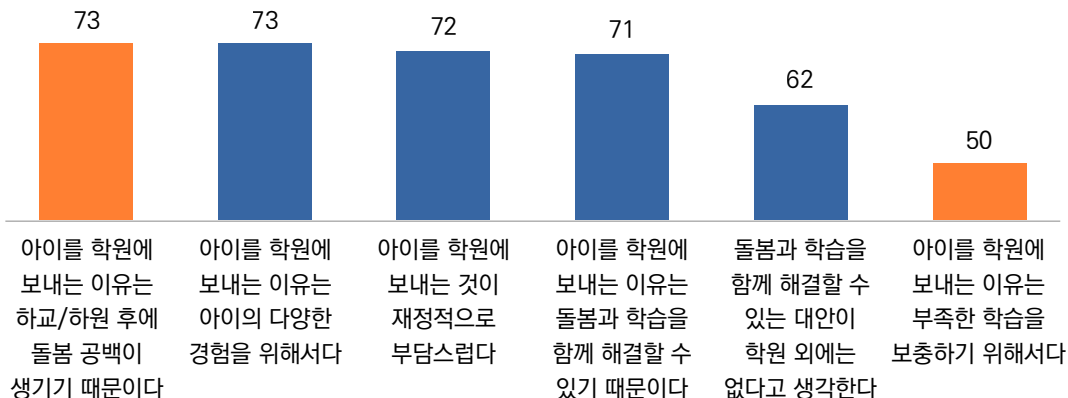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 초등 저학년 자녀를 학원 보내는 이유, 학습 보다는 '돌봄 공백' 때문!

- ▶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결국, '돌봄 공백을 메우고'(73%), '돌봄과 학습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71%),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72%) '학원'을 선택하게 된다.
- ▶ '부족한 학습 보충을 위해' 학원에 보낸다는 비율은 관련 항목 중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즉, 학원은 학습 보충을 위해 다니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미취학~초2의 자녀가 있는 일하는 어머니들은 학습보다 돌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초등 저학년(1-2학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생각 (학원 이용자,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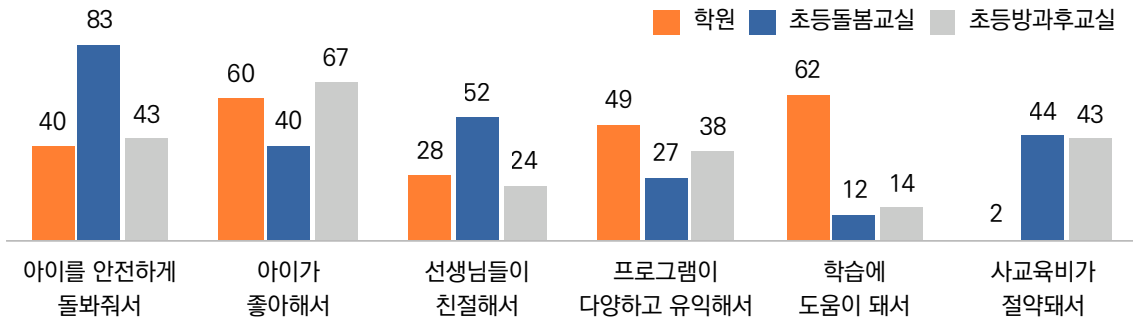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 5점 척도 중 '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임.

◎ ‘비용’, ‘학습’, ‘안전’을 모두 만족시키는 돌봄 기관 부재!

- ▶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교실’은 ‘학습’면에서 만족도가 낮고 ‘학원’은 ‘비용’ 면에서 만족도가 낮다.
- ▶ 한편, ‘학원’은 ‘학습 도움’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방과후교실’은 ‘안전한 돌봄’과 ‘아이의 흥미’면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 ▶ 이처럼 정부 제공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과 민간 서비스인 ‘학원’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학습도 만족시킬 수 있는 돌봄 기관이 없음을 반증해 준다.

[그림] 이용 중인 돌봄 기관/프로그램 만족 이유 (각 기관/프로그램 이용자 중 만족자 대상,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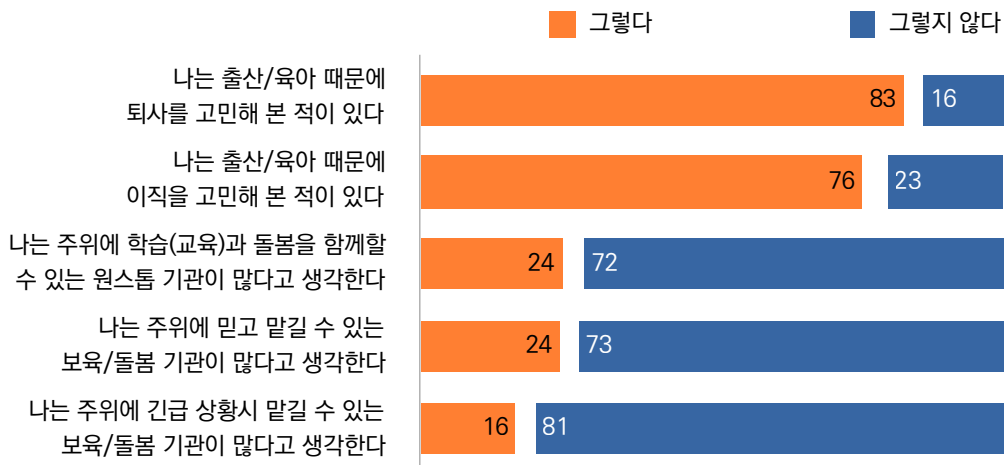
*자료 출처: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02

일하는 어머니(워킹맘) 10명 중 8명, '출산/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했다!'

- ▶ 만 3세~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중 무려 83%가 '출산/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습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는 원스톱 기관이 많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 기관이 많다'에 대한 동의한 어머니는 4명 중 1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개 부처가 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후 '돌봄'에 대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그림] 육아/돌봄 관련 일하는 어머니(워킹맘) 의견** (%)



*자료 출처: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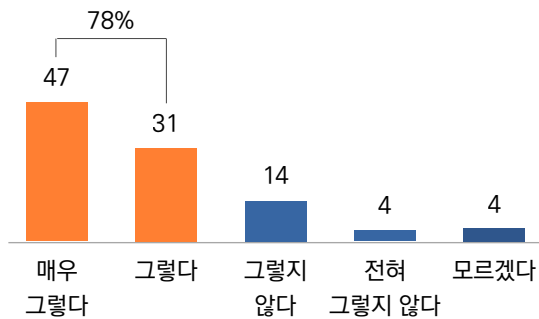
**4점 척도 중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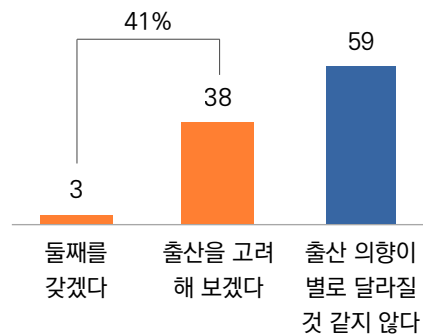
둘째 출산계획 없는 워킹맘, 돌봄 문제 해결되면 '둘째 출산 고려하겠다' 41%!

- ▶ 이처럼 아이 돌봄에 관한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히 출산율과도 연관된다.
- ▶ 일하는 어머니(워킹맘)의 78%가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동의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믿을만한 보육/돌봄 시설이 집/직장 근처에 확충된다면 '둘째를 갖겠다' 또는 '둘째 출산을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이 41%였다. 돌봄 문제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 ▶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믿을만한 보육/돌봄 시설이 집/직장 근처에 확충'된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은 어머니에서 62%, 목회자에서 67%로,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 ▶ 이는 모두 경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시설 확충이 출산율 상승에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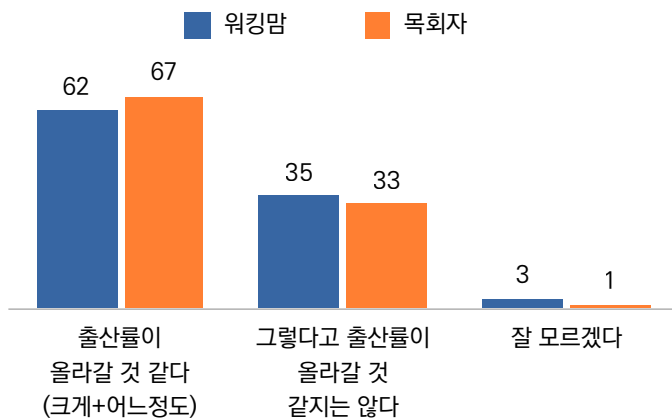
[그림]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워킹맘, 동의율, %)



[그림] 믿을만한 보육/돌봄 기관 확충 시 둘째 출산 의향 변화 (둘째 출산 계획 '없음/모름' 응답자 대상, %)



[그림] 믿을만한 보육/돌봄 시설 확충 시 출산율 영향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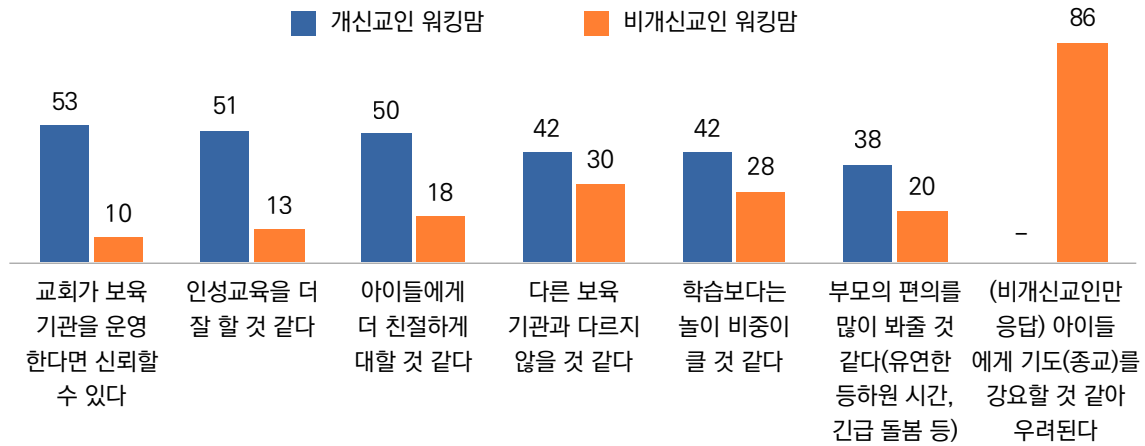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04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 기관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 어머니와 비개신교인 어머니 간에 큰 격차 보여

- 교회가 운영하는 돌봄 기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 모든 항목에서 개신교인 어머니는 긍정, 비개신교 어머니는 부정 인식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비개신교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기도(종교)를 강요할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인식이 86%로, ‘종교 강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 운영 돌봄 시설에 대한 인식 (항목별 동의율 ‘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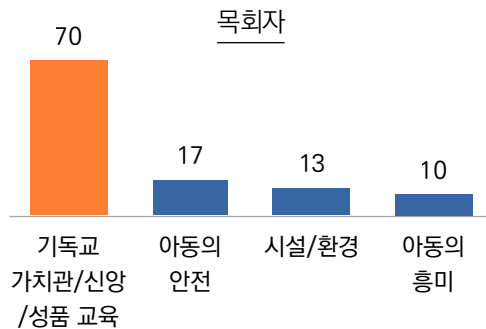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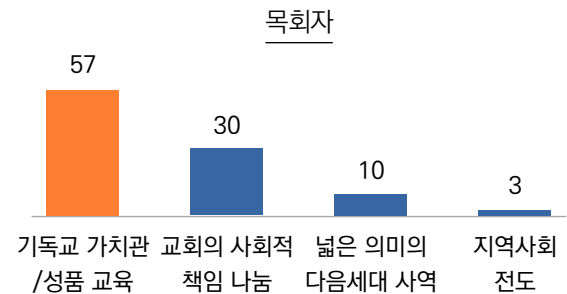
◎ 목회자, 돌봄기관 운영시 중요시 하는 점, ‘기독교 가치관/성품 교육’!

- 한편, 돌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중요시하는 점과 기대하는 점은 모두 '기독교 가치관/신앙/성품 교육'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교회가 하는 돌봄 사역이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유익하려면 비개신교인까지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비개신교인의 우려사항과 돌봄 사역 목회자의 중점사항이 충돌하는 면을 보여준다. 비개신교인에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사역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돌봄 기관/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중요하는 점 (돌봄 사역 하고있는 목회자 대상, 상위 4위, %)



[그림] 돌봄 기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점 (돌봄 사역 하고있는 목회자 대상,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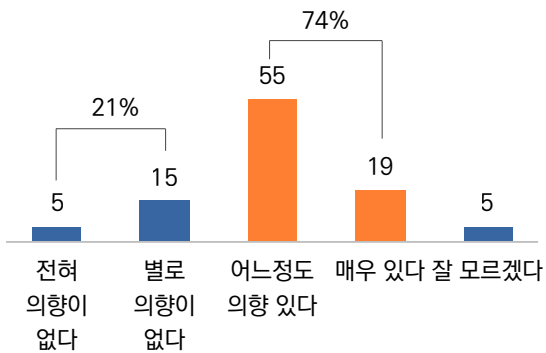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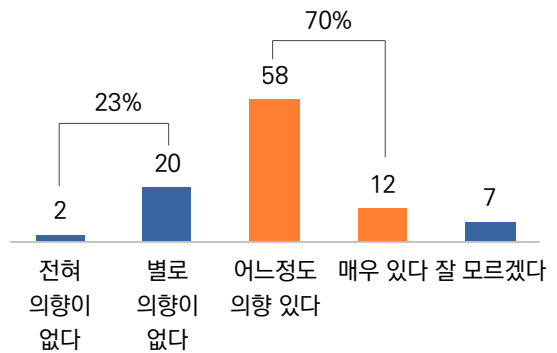
현재 돌봄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 '앞으로 돌봄 사역할 의향 있다' 74%

- ▶ 한편, 현재 돌봄 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 중 90%가 돌봄 사역에 '관심이 있다'(약간+매우)고 응답했으며, 실제 사역을 할 의향도 74%로 나타났다. 돌봄 사역 의향이 별로 없는 목회자 중 70%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으면 사역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 이처럼 많은 교회가 돌봄 사역에 대해 관심과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교회의 돌봄 사역 확장, 나아가 사회의 돌봄 여건 개선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영유아/초등 돌봄 사역 할 의향
(돌봄 사역 하지 않는 목회자 대상, %)



[그림]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있을 시 돌봄 사역 할 의향
(돌봄 사역 의향 '어느정도 있다 전혀없다' 목회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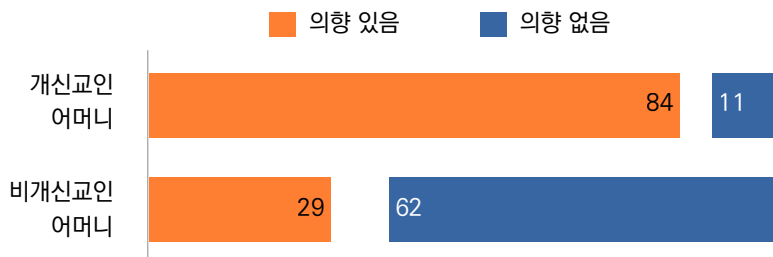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 교회 운영 돌봄 기관(서비스) 이용 의향률, 개신교인 어머니 84%, 비개신교인 어머니 29%

-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자녀를 돌봐주고 여러 요소가 마음에 드는 보육 기관을 집/직장 주변의 교회가 운영한다면 이용할 의향'에 대해 개신교인 어머니의 84%, 비개신교인 어머니의 29%가 각각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 비개신교인의 경우 개신교인에 비해 낮은 의향률이나 앞서 살펴본 인식 차이에 견주어볼 때 결코 낮은 수치라 할 수 없다. 즉, 그만큼 종교를 떠나, 현실적인 여건에 맞춘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교회 운영 돌봄 기관(서비스) 이용 의향** (워킹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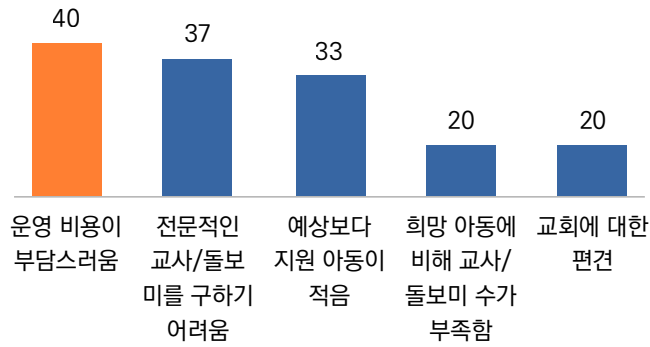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4점 척도 중 '약간 있다+매우 있다'의 비율임.

◎ 돌봄 시설 운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애로사항, ‘운영 비용’ ⇒ 정부 보조 필요

- ▶ 현재 교회에서 아이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운영 비용’을 꼽았다.

[그림] 돌봄 기관/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
(돌봄 사역 하고 있는 목회자 대상, 상위 5위, 2순위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CTS '교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 2021. 12. (만3세~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 500명, 한국교회 담임목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1.10.21.~10.29, 지앤컴리서치)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해에 출생하는 자녀 수가. 2000년에는 64만 명이었는데 20년만인 2021년에는 26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앞으로 50년 후인 2070년에는 20만 명으로 줄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자 수는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만15세~64세)의 비중도 2020년에 72%였는데 2070년에는 46%로 무려 30%p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넘버스 128호 4쪽)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이 2020년에는 44세였는데 2070년에는 62세로 크게 오를 것이다. 즉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하, 나머지 절반 이상은 62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이다. 이 슬로건에서 보듯, 정부의 기본 계획은 결혼·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경력에 장애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¹⁾ 출산 육아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여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 안·밖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아동 돌봄은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공공성은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에 대해 부모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을 위

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원 등 민간기관의 경우는 학습에 대한 욕구는 채워 주지만, 공공성과 비용에서는 미흡하다.(4쪽)

공공성과 서비스의 수준,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교회만 한 데가 없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감, 비용, 학습, 안전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집 근처에도 있고, 직장 근처에도 있다.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교회는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이미 많은 교회에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초등학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돌봄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74%나 향후 돌봄 기관을 운영할 의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7쪽) 돌봄 수용자인 워킹맘들도 호의적이다. 개신교인 어머니는 물론이고 비개신교인 어머니조차도 교회 운영 돌봄 기관이 종교 교육을 강요할까봐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만 우수하다면 29%나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7쪽)

교회가 돌봄 서비스에 나선다면 개신교인 부모들이 바라듯 돌봄 이용 외에 기독교 교육까지 시킬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의 돌봄 서비스는 일과 가정, 일과 육아, 일과 양육을 양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동참할 수 방법이다. 교회의 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교회가 자기 위치에서 작게나마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어린이가 늘어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교회의 어린이가 줄어들고 교회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1)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50쪽.

1.[2020년 임금근로자의 소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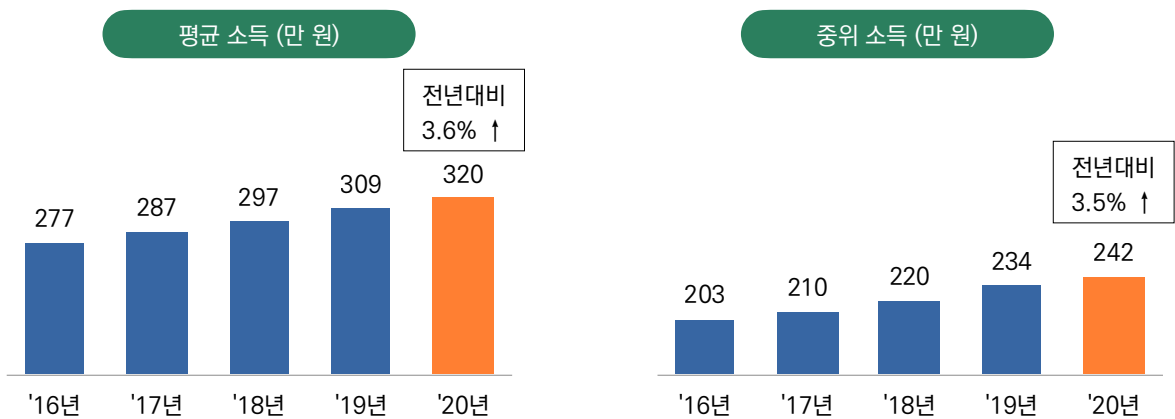
2.[2021년 초·중·고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 320만 원!

- ▶ 지난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만 원(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13.5%(43만 원)가 증가하였다.
- ▶ 한편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보여주는 '중위소득'은 2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8만 원(3.5%) 증가했다.

[그림] 임금근로자 소득 현황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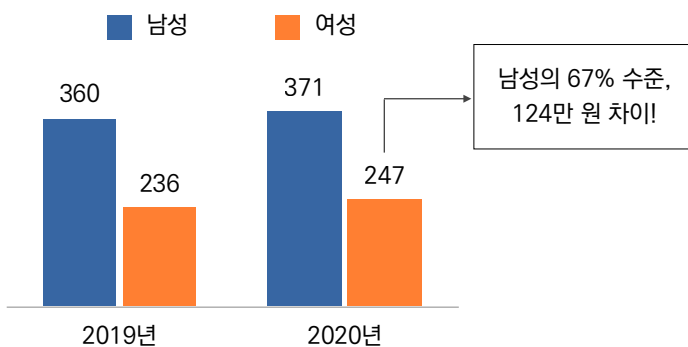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02.21.

◎ 여성의 월 평균 소득, 남성의 67% 수준!

- ▶ 성별로 보면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 여성은 247만 원으로 남성의 67% 수준이었다. 2019년 66% 수준에서 약간 상승했지만 남녀 평균소득 차이는 124만 원으로 여전히 컸다.

[그림] 임금근로자 소득 현황 (성별, 2019 vs 2020,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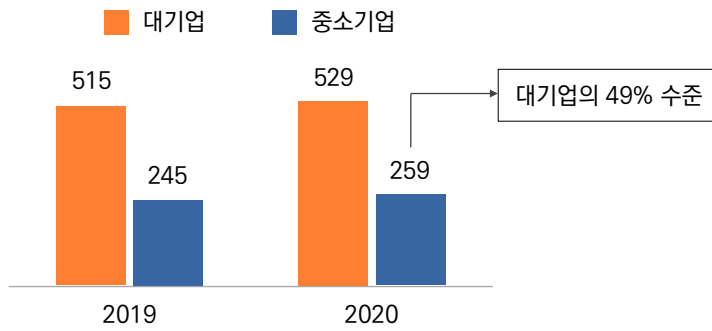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02.21.

**그래프 위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대기업의 49% 수준!

- ▶ 기업 규모별로 월 평균 소득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 529만 원, 중소기업 259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소득이 대기업의 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임금근로자 소득 현황 (기업규모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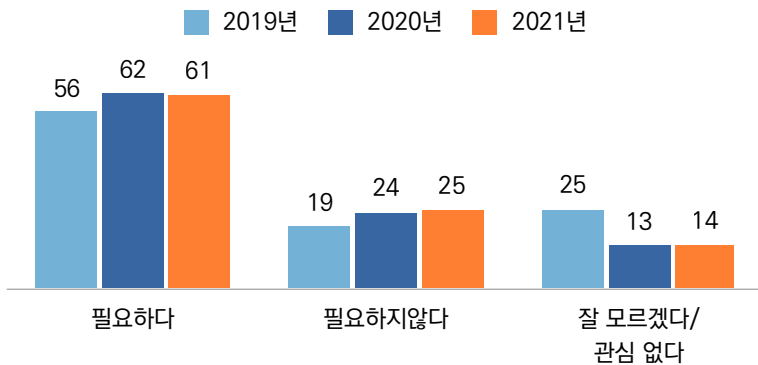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02.21.



초·중·고 학생 ‘통일 필요하지 않다’, 조금씩 증가 추세!

- ▶ 통일부와 교육부가 2월 17일에 발표한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 61%,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25%로 5명 중 3명은 통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9년 19%, 2020년 24%, 2021년 25%로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초·중·고 학생의 통일 필요성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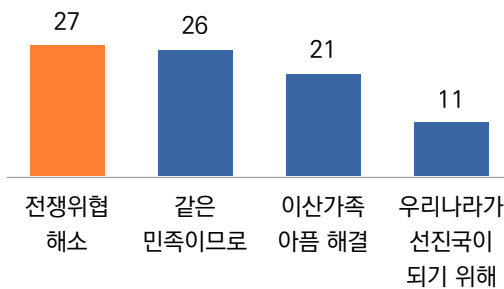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부/교육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22.02.17.(초·중·고 734개교, 학생 총 67,000명, 2022.11.01.~12.10.,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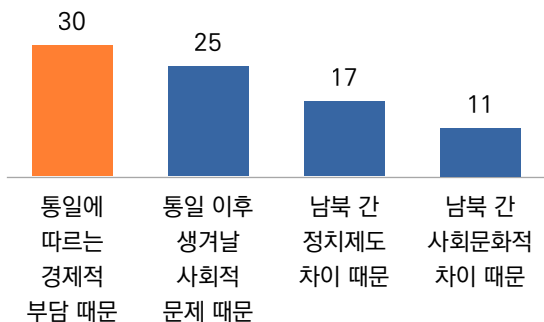
◎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 1순위, ‘경제적 부담 때문!’

- ▶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해소’ 27%, ‘같은 민족이므로’ 26%, ‘이산가족 아픔 해결’ 21% 순으로 답했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즉, 통일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10명 중 3명(30%)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 ▶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와 함께 실리적이고 갯생**을 중시하는 현 세대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통일이 필요한 이유 (상위 4위, %)



[그림]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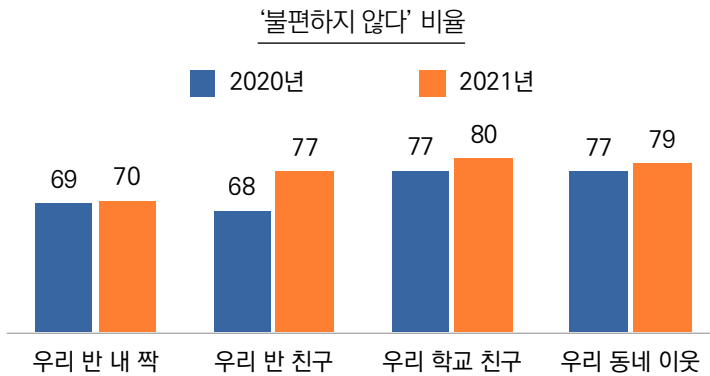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일부/교육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22.02.17.(초·중·고 734개교, 학생 총 67,000명, 2022.11.01.~12.10., 온라인조사)

**‘갯생’은 신(갯 God)과 인생(人生)이 합쳐진 신조어로 ‘현실생활에 집중해 성실하게 사는 삶’을 뜻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1935#home>(중앙일보 기사,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2021.05.20.)

◎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우리 반 내 짝이 된다면? ‘불편하지 않다’ 70%!

- ▶ 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 학생과 여러 관계가 됐을 때 관계유형별로 불편함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우리 반 내 짝’이 될 경우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70%나 되었다.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은 ‘우리 반 친구’ 77%, ‘우리 학교 친구’ 80%, ‘우리 동네 이웃’ 79%로 나타나, 대체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 대해 ‘불편하지 않다’는 인식은 전년 대비 약간씩 증가했다.

[그림] 북한 이탈주민 학생과 관계에서 관계별 불편함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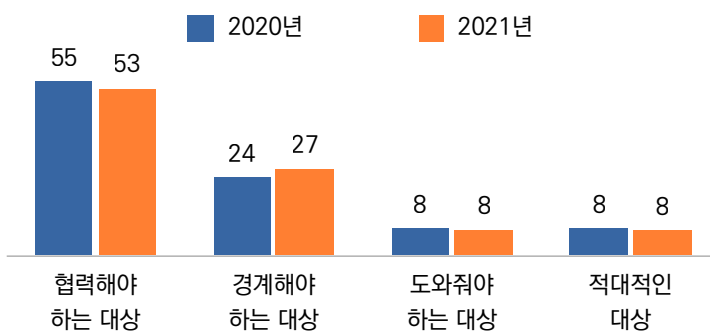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일부/교육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22.02.17.(초·중·고 734개교, 학생 총 67,000명, 2022.11.01.~12.10., 온라인조사)

◎ 초·중·고 학생 2명 중 1명, 북한은 ‘협력 대상’!

- ▶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았다. 학생 53%는 북한이 ‘협력 대상’이라 답했는데, 이는 작년 대비 2%p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경계 대상’이라 답한 비율은 27%로 2020년 대비 소폭(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북한은 어떠한 대상인가? (%)



*자료 출처: 통일부/교육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2022.02.17.(초·중·고 734개교, 학생 총 67,000명, 2022.11.01.~12.10., 온라인조사)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4호\(2022년 2월 4주\) - 대선 후보 지지도, 대통령 선택 기준 등](#)
-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66호\(2022년 2월 4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 사회 일반

-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
연합뉴스_2022.02.23.
- [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지방소멸 위협 느껴"](#)
연합뉴스_2022.02.27.
- ['호모 헨드레드' 시대?...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22명](#)
연합뉴스_2022.02.25.
- [2020년 노인 돌봄 재정지출 16.4조원...4년새 69% 증가](#)
연합뉴스_2022.02.28.
- [작심삼일? 64%가 한 달 넘게 새해 결심 지켰다](#)
조선일보_2022.02.18.
- [월화수목 '일일일'... 주4일제 실험, 어디까지 왔나](#)
국민일보_2022.02.22.
- [소득분배 2분기째 개선...각층 소득 늘고 하위 20%서 최대 증가](#)
연합뉴스_2022.02.24.

◎ 경제 / 금융

- [10명 중 8명 "펀드 잘 몰라요"](#)
한국경제_2022.02.04.
- [투자자들 "ESG 스타트업 투자 확대할 것"](#)
벤처스퀘어_2022.02.22.
- ["E 성향만 합격시키는 거 아냐?"...취업 시장까지 파고든 MBTI 열풍](#)
매일경제_2022.02.24.
- ["망하더라도 잘리고 싶진 않아"...'20대 사장님'들의 창업분투기](#)
한겨레_2022.02.23.

◎ 청소년 / 청년

- ["참 잘했어"...학생들이 부모·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매일경제_2022.02.22.
- [청년들, 부모 도움 여부 따라 출발점부터 차이](#)
중소기업투데이_2022.02.2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19~34세 청년 40% “난 빈곤하다”…실제 순자산 빈곤율 ↑](#)

국민일보_2022.02.27.

[MZ세대 복지에 열광…집 청소, 골프회원권 대여까지](#)

중앙일보_2022.02.26.

◎ **환경 / 건강**

[소비자원 “배달음식 이용자 1인당 연간 10.8kg 플라스틱 사용”](#)

연합뉴스_2022.02.24.

[코로나19 확산에 외래진료 6.7%P ↓ …3명중 1명은 “감염 불안”](#)

연합뉴스_2022.02.24.

◎ **국제**

[日국민 “중국보다 한국이 더 친근”](#)

조선일보_2022.02.25.

[한국, 코로나19 시대 살기 좋은 나라 21위…12계단 ↓](#)

연합뉴스_2022.02.27.

[세일즈포스, 디지털 스킬 갭 인식 조사 결과…한국 19개 국가 중 18위](#)

ZDNet_2022.02.08.

◎ **기독교 / 종교**

[“북한군, 6·25 퇴각 때 종교인 1145명 학살” … 진실화해위 첫 확인](#)

조선일보_2022.02.22.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 서로 위해 기도하고 삶 나눠야”](#)

국민일보_2022.02.23.

[‘가상인간’ 로지, 설교도 할 수 있을까 “SI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격성까지 갖기는 어려워”](#)

국민일보_2022.02.28.

[‘MZ세대 고민’ 보듬은 채팅, 지난해 19만명을 전도하다](#)

국민일보_2022.02.22.

◎ **이슈큐레이션**

[가상세계, 현실이 되다! 메타버스 시대 '성큼'](#)

연합뉴스TV_2022.02.26.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행복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인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운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장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홍현풍, 박명규, 이창형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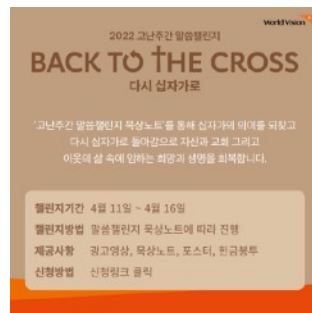


신청

2021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1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Vol.3>을 출판하였습니다.

출판 이벤트로 신청하시는 100분께 추첨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을 눌러 받으실 성함,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월드비전 고난주간 이벤트 |



소개

신청

2022 고난주간 말씀챌린지
고난주간 묵상노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챌린지기간 : 4월 11일 ~ 4월 16일

챌린지방법 : 말씀챌린지 묵상노트에 따라 진행

제 공 사 항 : 광고영상, 묵상노트, 포스터, 현금봉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